

‘오방색 대가’ 故오승운 화백

거장의 예술혼 기린다



故 오승운 화백 생전 모습

타계 5년만에 화집 출간...내달 2일 출판기념회

미발표작 50점 등 일대기 망라한 245점 담아내

기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푸르고, 하얗고, 붉고, 검고, 노란색은 금강산이 되고 화려한 꽃이 된다.

‘예술은 나의 목적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고 오승운(1939~2006년) 화백의 화집이 출간된다.

오 화백의 장녀 오수경씨는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버지의 미발표작과 대표작 등 245점을 추려 화집을 제작 중이며, 오는 12월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전 그는 전통색인 오방정색(五方正色)을 바탕으로 그린 ‘풍수(風水)’ 시리즈 등의 제작 기법을 완성하고, 창작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풍수’(2002년) ‘금강산’(2005년) ‘꽃’(2005년) ‘연’(2005년), 고인이 아내 이상실(64)씨를 그린 ‘처의 상’(1970년) 등의 미발표작이 화집에 실렸다.



‘성전’

리즈와 인상주의적 풍경화 등 초기 대표작도 함께 담았다. 눈에 띄는 작품은 고인의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바람과 물의 역사’(가로 610cm x 세로 210cm)이다.

또 오 화백과 갈등을 빚던 화랑측이 지난 2005년 판화제작을 명목으로 유화 작품 33점을 간내 받은 후 오 화백의 타계 이후에도 유가족에게 작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번 화집에는 재판을 통해 유족이 되돌려 받은 이들 작품도 실렸다.

유족은 그의 오방색을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 화집의 종이와 잉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공을 들였다.

오승운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목이었던 고 오지호(1905~1982년) 화백의 차남이며,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의 동생이다.

흥익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1970년 전남도 추천작가로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추천·초대작가와 심사위원·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1996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현대미술전람회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일본의 수지야마 유, 이탈리아의 파비오, 프랑스의 본느프와 등 중진작가들과 함께 파리 동경 서울 등을 돌며 순회전을 열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오 화백의 자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미술 혼을 잇고 있다. 첫째 아들 병희씨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근무 중이며 큰 딸 수경씨는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바람과 물의 역사’

창립 20주년 맞는 ‘광주피아노아카데미’ 김선자 회장

“창작 피아노의 선율, 세계에 들려주고파”

회원 46명 전원 19일 기념공연

지난 1990년 가을,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10여명의 피아니스트가 의기투합했다.

어느덧 창립 20주년을 맞는 광주피아노아카데미가 오는 19일 기념공연을 준비중이다.

초창기부터 광주피아노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김선자 회장은 “처음 그룹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모임의 철학과 방향성, 음악적 이상이었다”며 “피아노 음악을 활성화 시키고, 특히 창작 피아노 음악을 키워보자는 목표는 일정 정도 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대, 조선대, 호신대, 목포대 등 지역 대학 강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 회원은 현재 46명에 이른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매년 두차례의 정기연주회와 회원 추천을 받은 각 대학 졸업생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신인음악회, 외국 유명 피아니스트 초청 공연 등

을 꾸준히 열었다.

특히 전국의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작 피아노 콩쿠르는 지역에서는 좀처럼 기획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서울 음악계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베토벤 등 유명 작곡가의 음악은 많이 연주하지만 우리 작곡가들의 곡은 연주하는 경우가 드문 게 현실이죠.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는 자국의 창작 피아노곡을 연주하도록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컨테츠가 거의 없어요. 우리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피아노곡을 공모하고, 수상 작품은 저희 정기연주회에서 공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20년을 맞아 또 다른 출발을 꿈꾸고 있다.

“도서박지 등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또 기회가 닿는다면 연주 무대를 해외로 확대하고 싶어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연주회에는 이태은·신수경·박행숙·문현옥·김정아·황미경·서운아·구재향·박행숙·장준화·이주영·씨 등 회원 46명 전체가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의 1부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



았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꾸렸다. 퍼커션·호른·드럼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며 소프라노 오송하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2부는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등 순수 피아노 연주로 진행된다. 티켓 가격 1만 원, 5000원.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자원 세미나 별별 이바구통’

오늘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이 진행하는 ‘2010 문화자원 세미나-별별 이바구통’ 다섯번째 행사가 16일 오후 6시 준비관(광주시 동구 금남로 갤러리 D 빌딩) 3층 커뮤니티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경수(향토지리연구소장·사진)씨가 ‘향토지리 연구를 통한 지역문화의 재발견’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김선기(영랑·현구 문학과 화에실장), 서해숙(전남대강사)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중학교 사회교사인 김씨는 (사)향토문화진흥원장, 출판사 향지사 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영산강 삼백오십리’, ‘광주 땅 이야기’ 등을 출간했다. 문의 062-224-2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밤 대금가락에 취해요

인간문화재 조창훈 정악발표회

오늘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20호인 대금 정악 발표회가 16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받은 조창훈 명인과 문학생들이 출

연한다. 순천 출신인 조 명인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장을 역임했으며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조 명인은 이번 무대에서 ‘상림산’과 ‘청성곡’을 들려주며 문학생들은 ‘평조희상’ 중 ‘상현도드리~군악’, ‘수연장지곡’을 들려준다.

또 변신씨의 가곡, 조영숙씨의 시조 연주도 이어진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교육문화원(NZLES:NewZealand Life Education Service, www.nzles.com)과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현지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 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특징 3 연수생 인건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NZLES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연수기간 | 2011년 1월 30일 ~ 2월 26일

연수지역 | 오클랜드 북부 Whangaparaoa

연수학교 | StanmoreBay School (www.stanmore.school.nz) GulfHarbourSchool (www.gulpharbour.school.nz)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연수인원 | 선착순 60명(심층면접후 실력고려 학년 배치)

신청마감 | 2010년 12월 10일

문의 | 062-220-0641

주최 | 광주일보사

주관 | NZLES·AK WORLDLINE